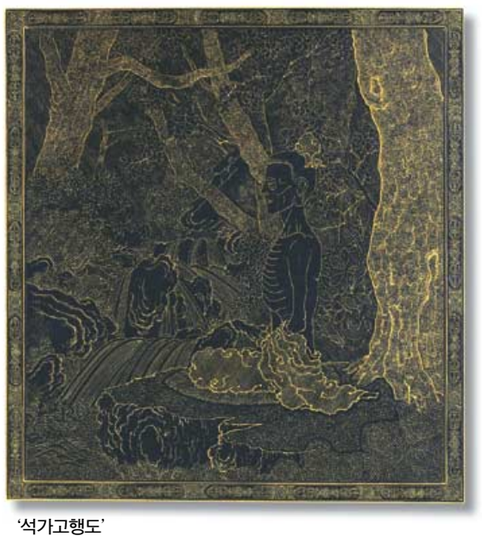
이해기 씨 '금화로 보는 부처님의 일생' 展

선으로 표현된 무상세계

5월 26일~ 6월 1일, 갤러리 라메르



'석가고행도'

'앙굴리 말라'

팔상도에 '석가의 수기' 등 20여점 추가
금속의 화려함 고급스러운 조형미 전달
민어고기 부레풀 사용 불교전통기법 계승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 출태(出胎), 출가(出家), 항마(降魔), 성도(成道), 전법륜(轉法輪), 입멸(入滅) 등 8가지 중요 장면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생의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에 내려오는 모습, 부처님의 탄생, 수행을 위해 왕궁에서 탈출하는 장면, 녹야원에서 5명의 비구에게 설법하는 모습, 최후의 설법을 마치고 입멸하는 장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화가 이해기(46 · 사진) 씨는 여기에 5년간 '아시타 선인의 예언' '마왕 파순과 딸들의 유혹' '7년만의 목욕' '석가의 수기' '앙굴리 말라' 등 20여개의 장면들을 더 그렸다. 이 씨는 그 결과물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갤러리 라메르에서 내놓는다. 전시 제목은 '금화(金畵)로 보는 부처님의 일생'.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선보이는 30개의 작품 모두 금(金)을 재료로 사용했다. 육안으로 바로 쳐다 볼 수 없을 정도의 가는 선(線), 그 선들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면(面)들의 치밀한 조우 때문인지 보는 이들에게 심적 여운을 품게 만든다. 여기에 순금(純金)이라는 금속의 특성마저 물씬 묻어나 단순한 수묵의 멋내기나 변용을 뛰어넘어 부처님의 일생을 고급스럽게 조형한 느낌을 준다. 마치 숭고한 부처님의 일생을 영원토록 보존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씨는 고려시대 사경에 사용된 금니선화의 순금에 민어고기 부레풀을 써서 제작하는 불교미술의 전통기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의미를 더해준다.

미술평론가 홍경한 씨는 "그의 작품을 면밀히 뜯어보면 종교적인 시각에서 시간적 '무상(無常)'과 공간적 '연기(緣起)'를 종과 횡으로 연결시켰음을 알 수 있다"며 "불설(佛說)에 입각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통해 불교교리의 시각적 표현을 시도하는 장엄한 조형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한다. (019)9339-2536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한동희 스님 '육법공양' 공연을 보고

넘치는 듯 절제된 완숙미

'육법공양' 중 나비무를 추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대단했다. 범패가 갖고 있는 독특한 청과 작법에 내재된 기의 흐름은 수행의 정도를 가늠케했다. '한동희 스님 육법 공양' 공연(4월 29일 호암아트홀)은 불교의식이 갖는 품격과 그 속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예술적인 가치를 음미할 수 있었던 아주 드문 자리였다.

첫 순서 '명발'에서 허공 속을 가르는 바라의 작은 부딪힘, '요잡'에서 좌우로 요동치는 바라의 너울거림이 앙상블의 묘미를 선사했다면, 동희 스님의 천수바라와 '법고', '화청'은 깊은 수행과 고도의 정신 세계와의 만남이었다.

'육법공양'은 자주 대할 수 없었던 것을 만난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순서였다. 부처님을 향한 길을 만들고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 의식 자체가 춤이고 음악이었다. 공양물에 담긴 비유와 상징의 의미는 몸짓에 담겨 춤으로, 마음에 담겨 음악으로 되살아나 무대예술로서 손색이 없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걸수(乞水)와 돌진언이었다. 물과 향, 진언이 차례로 이어지는 이 순서는 구혜, 동희, 한산 세 분 스님들이 진언을 외우면서 천천히 도는 장면에서 그 엄숙함과 시각적인 이미지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안겨주었다. '나무영산회상불보'를 10명

소리, 무용 초월한 정신세계 표현
양식 자체가 예술, 의식 진수 펼쳐

의 스님들이 짓소리로 합창하는 '거령산'도 그 웅장한 소리의 합일이 가히 감동적이었다. 마지막을 장식한 동희 스님의 화청 또한 대단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가슴 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한의 정서, 스님은 소리 하나로도 인간의 감성을 여지없이 건드렸다.

불교예술의 정수가 동희범음회 소속 회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 또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직업무용단과 일부 무용가들에 의해 불교의식이 무대에 올려지면서 보여주었던 지나친 과장과 제대로 수련이 안된 상태에서의 어설픔, 그리고 원형 파괴의 흐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아쉬움도 있었다. 자음(불교의식)과 모음(극장예술)의 만남이 조금 더 확장되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무대에서 보여진 동희 스님의 예술성과 연출력, 동희범음회 회원들의 열정이라면 격을 유지하면서도 극장예술의 다양성을 더욱 접목시킬 수 있었던 구성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공연에서 동희 스님의 소리는 영혼을 다스렸고 몸짓은 마음을 움직였다. 득음의 경지, 명무의 반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오랜만에 정화의 세계와 만난 참으로 특별한 날이었다.

장광열(무용평론가)

한국불교학결집대회 결산

5월 2일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폐회식에서 이번 대회 조직위원장 해주 스님(왼쪽)과 차기 대회장 종림 스님이 꽃다발을 주고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 기틀 마련

"외국학자들의 두드러진 참여 속에 이들이 자국의 불교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와의 비교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내놓았다. 응용불교에서는 이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불교계 학술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5월 2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외국학자들의 참여가 늘고 응용불교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 속에 한국불교사, 중국 · 일본 · 인도 불교, 선, 밀교, 응용불교 등을 주제로 11개 분과에서 17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외국학자 대거 참여
174편 논문 양적 증가
응용불교 연구 큰 성장
짧은 발표시간 등 한계

지난 1회 대회가 한국불교학자들의 모임을 시도한 대회였다면, 이번 대회는 결집대회를 보다 조직화해 지속적인 대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펼쳐내 보일 장(場)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최근의 화두를 현실에서 보여준 대회이기도 하다. 교수부터 박사과정자까지 모두 44명의 외국학자가 논문발표를 신청했고, 일본 '동아시아불교연구회'는 외국 학회로는 처음으로 단체참여를 신청했다. 동아시아 불교연구회 회장 간노 히로시 교수는 "2년전 열린 인도학불교학회에서 결집대회를 처음 알게 돼 참여했다"며 "결집대회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널리 알려진다면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논문의 주제별로는 응용불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웃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 · 사상비교, 불교사회학적 측면의 연구로 불교학의 외연을 넓혔고, 발표된 논문도 지난 대회보다 3배나 증가했다. 노권용(원광대) 교수는 "응용불교 연구는 이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연구로 나아가야한다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집대회는 발표자들의 참여율 저조와 짧은 발표 시간으로 인한 토론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대회 참여율은 지난대회와 비슷해, 174편의 논문 가운데 자료집에 실린 논문은 139편으로, 35편의 논문은 발표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제출됐다. 이에 대해 한 발표자는 "참석하지 않은 발표자 가운데에는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성실한 참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발표학자 당 논문 발표와 토론이 2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 발표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170여 편의 논문을 모두 발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남아, 다음 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2006년 제3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에는 종림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이 조직위원장에는 이중표(불교학연구회 회장) 교수가 선출됐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마하몰(www.mahamall.co.kr) 봉축캐릭터 용품전

마하몰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봉축용품을 준비하세요!!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 - 1520

▮봉축현수막 : 나염
90cm×6m (40,000원)
90cm×7m (45,000원)
90cm×8m (50,000원)

▮봉축현수막 : 세로
90cm×6m (60,000원)
90cm×7m (70,000원)
90cm×8m (80,000원)

▮지하철현수막
105cm×200cm (40,000원)
※현수막 크기, 내용은 변경가능

※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

▮캐릭터비닐만월등
32cm × 32cm
분홍,빨강,파랑,
노랑,초록,색상별

▮장엄번(만장기)
90cm × 210cm (40,000원), 90cm × 230cm (45,000원)

▮캐릭터 청사초롱
4,000원 고급 본염 인쇄 ※최소주문수량 100개

▮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봉축버튼
3,200원
※8개 1세트

▮팬시스티커
1,200원
※12개 1세트

▮봉축풍선세트
30,000원
※100개 1세트(대롱 포함)

▮성인용/아동용선캡
3,000원

▮자외선 차단 선캡
6,000원

▮큐방 연꽃 차걸이
3,600원
재질 : 마블
색상 : 노랑,분홍,
연두,보라,오렌지

▮연잎연밥 차걸이
3,000원(개당)

▮차량용 깃발
4,000원, 20×30cm

▮연꽃리본
일반 : 25,000원
고급 : 35,000원
노랑,연분홍,연보라
※100개 1세트

▮청자연잎 향꽂이
6,000원

추천상품

▮청자칠보투각향로
(靑磁七寶透刻香爐)
국보재현품.
~~49,000원~~
특별할인가 : 39,800원

▮백련정차
연의 꽃, 그리고 잎과 뿌리,
연자를 같이 법제하여 만든 차
50g : 18,000원, 100g : 35,000원
정차세트(50g+100g) : 47,700원

▮황토달마
~~98,000원~~
특별할인가 : 59,800원
가로25cm × 세로30cm
지리산 황토100%

▮연꽃전등(中)
35,000원
15cm(높이)×
17cm(넓이)

▮연꽃전등(大)
50,000원
15cm(높이)×
13cm(넓이)

▮연꽃저금통
3,000원

지면에 광고된 상품 외에 보다 많은 봉축용품을 인터넷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